

## 집안 식구가 바로 자기 원수다

A man's foes will be those of his own household

최근 학교만큼이나 바쁘게 건설교통부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건설회사의 설계 검토퍼용 여부는 최대의 현안 문제이다. 그럼에도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 낙관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사정이 이런데도 문제는 이른바 '논리'를 별로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데 있다. 왜 건설회사가 설계시장에 들어오면 안 되는가에 대해 산업구조적인 대응방식을 갖는데 논리가 없을 뿐 아니라, 구사하는 단어도 내재적이다. 건축은 문화이고 예술이며, 건축사는 변호사나 의사와 같은 것이고,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며, 설계는 시공을 견제하는 수단이 되고, 외국에는 시공사가 설계를 하겠다고 나서는데는 일본 등이 고작이며, 아마도 시공사가 건축사사무소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낙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시공사가 건축사사무소를 갖는 경우, 건축사사무소의 위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주체자로 계속 남을 것인가, 종속자로 전락할 것인가? 시공사 소속의 건축사사무소는 과연 어떤 건축사사무소를 지향하여 만들어질 것인가? 시공사의 설계부서에 지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견고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 있는 새로운 사무소의 출현이 기대되는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아무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의문은 계속된다. 이 문제 이전에 우리나라 건축사사무소는 어떤 산업의 구조를 갖추어야 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건축사사무소가 초대형 사무소로서 성장하여야 하는가? 그리고 그 초대형 사무소는 건축설계 영역의 만형으로서 일을 분배하고 기술력을 키우며 세계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가? 그리고 중규모의 건축사사무소는 어떤 디자인 능력을 키워야 하는가? 이런 규모에서 국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사무소로 성장하려면 어떤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뚜렷한 대응을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왜 대형사무소만 기술발전에 주역이라고 보는가? 일본의 지도적 건축가들은 모두 대형사무소들인가 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 그

들은 독자적인 이론과 디자인으로 세계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비록 작은 수이기도 하나 일본이 일본다운 세계적 건축집단을 소규모 안에서 성립시킬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별다르게 주목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공정한 설계경기와 소규모 공공프로젝트에 작은 규모의 건축집단이 어느 정도는 구조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도 않아서 자칫하면 건설사의 규모 여부를 떠나 이에 종속되는 건축사사무소가 많이 속출하게 된다면, 이를 어떻게 사전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대학은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세계적으로 활약하는 건축가를 양성하겠다고 불과 몇 년 전에 겨우 제대로 된 학제를 출발하였는데,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대학에도 있다. 과연 몇 명을 사회에 배출해야 일하기에 적당하고 대접받으며 일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이 전혀 없이, 거의 대부분이 5년제를 택하였고, 건축대학으로 승격하였으며 한 대학이 1년에 100명 150명씩 양성하여 내보내고 있다. 물론 각 대학의 정원은 대학이 알아서 할 일이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대학에서 얼마의 학생이 나와야 그들이 대접받으며 일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이 없이 진행되고 있고, 게다가 일자리가 없다면 그것은 양산 교육에 지나지 않는다. 의대 정원은 의사협회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무슨 공식이 있고 계산 방식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 대학 입학 정원 공식적인 건축관련 단체가 셋씩이나 있는데, 이 문제에 가능자가 없고 문제의식이 없다면 문제는 건축계 내부에 있다.

설계비에 대해 논의할 때, 필자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늘 느낀다. 그것은 건축사만이 설계비를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건축설계비는 건축만이 아니라 구조설계비, 설비설계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건축사만이 설계비를 말하고 있는가이다. 건축사들은 우리가 받는 설계비에는 컨설팅 비용이 들어 있어서 많은 부분이 거쳐 지나갈 뿐입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에게 건네주어야 할 비용이 타당한가라고 조사하고 과연 진지하게 협의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설계비가 이렇게만 내부의 문제로 단순히 주장되고 인식된다면 그것 또한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기가 어렵고, 결과적으로는 산업과 기술이 발전을 위해 설계비를 이렇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대사회적 발언력을 높여 말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문턱 앞에 놓인 위기에 대해 별다른 논리를 갖지 못한 이유를 이전에는 외부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사회가 인정하지 않아서, 국가가 정책을 세워 주지 않기 때문에, 건축문화를 몰라주어서, 외국에는 그렇지 않은데, 심지어는 선비처럼 생각하지 못하는 졸부들이 도시를 망쳐서 라는 식으로 이유를 외부에 전가하였다. 그러나 잘 들여다보면 건축계가 잘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내부에 있다는 것이다. 세상은 경쟁하고 변화하는데, 구조적으로 변혁을 피하지 못하는 것은 그 가장 원인이 건축계 내부에 있다는 사실이다.

제도에 관련된 산업임에도 제도와의 관계를 능동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주어진 제도를 철저하게 이용하기만 한다면, 제도의 개혁자가 아니라 제도를 받아 적는 자요, 제도에 충실히 밀착하는 자에 지나지 않는다. 변혁하려면 내부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 내부의 모습을 극복하려면 내부가 암초가 되어 나타나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필자는 다시 생각하고 싶다. 건축계에 모순이 있다면 그것은 일차적으로 내부의 모순이라고 개혁하고자 하는데 개혁의 걸림돌이 우리 내부에 있는 것이다. 건설과 설계는 동일한 선상에 있지 않으며, 대형사무소와 소형사무소도 같은 선상에 있지 않고, 대학의 발전이 알고 보면 앞이 잘 안 보이는 암산에 불과하다면, 그리고 감리 시장을 설계와 결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라져 이렇다 할만한 성과를 못 거두고 있다면, 여러 항목을 나열하자면 모순은 내 속에 가득 발견된다. 그래서 성서는 말한다. “집안 식구가 바로 자기 원수다”(마태오 10:36)라고. ■